

전주시, 경기전 은행나무 가지 정비 추진

안전한 관리·균형 있는 생장 위해 내년 1월 17일까지 단계적 가지치기 작업 실시

전주시가 국가유산(사적)인 경기전 내 은행나무의 안전한 관리와 균형 있는 생장을 위해 낙하 사고 우려가 큰 은행나무 가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경기전 내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나뭇잎이 완전히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은행나무의 잎이 나오기 전인 겨울과 초봄 사이는 나무의 수액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 가지 형성을 촉진하는 가장 적합한 가지치기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경기전 내 인도변으로 뻗은 은

행나무의 가지치기와 더불어 주변 소나무 등의 고사한 가지 제거 및 숙기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경기전 내 가지를 정비키로 한 것은 지난 10년간 경기전 은행나무의 고사 가지만 제거해 왔으나, 최근 계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수고가 높아지면서 최근 인도 변 가지 낙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3일에는 경기전 내 은행나무의 큰 가지가 부러져 담장 바깥 인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는 다행히 새벽 시간에 발생해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과 함께 △은행나무가 위험하다 △담장 붕괴 우려가 있다 등의 내용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았다. 가지치기는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자(식물보호업)를 통해 안전하게 시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현장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면서 “경기전 은행나무는 가지치기 이후 3년이면 현재 수준의 생육 상태로 다



인도 변 은행나무 가지 낙하 모습

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와 함께라면 축제 개최

10일 덕진공원에서 누구나 라면 1개로 기부 동참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전주 덕진공원에서 누구나 라면 1개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 등 전주시 대표복지사업인 함께복지사업 참여기관들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덕진공원 열린광장에서 ‘전주와 함께라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라면 1개 기부 후 입장’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렇게 모인 라면은 고립·위기가구 발굴 사업인 전주함께라면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축제로, 시민이 기부하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전주만의 대표 복지 축제를 목표로 열린다.

축제 기념식은 이날 낮 12시부터 진행되며, △함께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트리 점등식 △문화 공연 △체험부스 △먹거리 부스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 가운데 먹거리부스에서는 전주시 함께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복지기관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등 지역 복지기관이 함께 준비한 이번 축제는 라면 1개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쉬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전주시 함께복지사업이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수록 지역사회에 나눔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함께복지사업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 우수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주시의 대표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권희성 기자

“호주 스포츠 외교 출장 과정서 방문단 술판” 보도에 전주시, 강경 대응 나서

지난달 호주 스포츠 외교 출장 과정에서 전주시 방문단이 술판을 벌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주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일 전주시 모 국장은 지난달 호주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출장은 그 어느 출장보다 일정이 빠듯했고 성과를 낸 출장이었다고 자부했는데 악의적인 ‘술판’ 보도로 성과가 폄해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국장은 “출장단 일행과 조출하게 술자리를 한 것은 인정이지만 술판이란 자체는 흥청망청 마시고 지나친 음주·가무를 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출장 내내 매일 같이 오후 9시까지 일정이 진행됐고 일과시간 이후 호텔 방에서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등 안면을 트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



전주시청 전경

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출장 기간에 1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시 실무진은 이번 출장에서 300여명의 소주 10병을

챙겨갔고, 이를 다 마시지 못해 남은 몇 병은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국장은 “일과 후 자리는 강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당일 진행한 일정 및 현장에 대한 느낌과 소회, 다음 날 일정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이를 ‘술판’이라고 규정한 보도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우범기 시장을 비롯해 방문단 12명은 하계올림픽 벤치마킹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지난달 5~11일 4박 7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브리즈번과 멜버른을 방문했다.

한 매체는 지난 4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우범기 시장이 호주 출장 내내 밤마다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예방접종 권고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2일부터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50~64세 전주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을 대상으로 한 무료접종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 대상 국가예방

접종은 전주시역 348개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비롯한 전국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도 적극 권장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 자체 사업 대상자인 50~64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지참 후 전주시 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동백로타리클럽, 김장김치 10상자 기탁

전주동백로타리클럽(회장 김수옥)은 지난 5일 인후1동주민센터(동장 임미영)에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김장김치 10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김장 나눔 행사에는 전주동백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껏 김치를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며, 기탁된 김장김치는 인후1동 관내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후1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동백로타리클럽은 매년 김장김치 나눔을 비롯해 명절 이웃돕기 물품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란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